SOCIETY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광주교육청, 작년 '전국 최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정 의무비율을 제품과 용역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2025년부터 1.1%) 정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본청, 산하기관, 학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독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2023년보다 0.83%p 오른 2.73%의 성과를 거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이는 지난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정선 교육감은 "올해 법정의무구매 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학교, 기관에 적극 안내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꾸준히 관리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4~5배 웃돈"…동심 노린 프로야구 암표 기승

어린이날 연휴 KIA 홈경기 티켓 '웃돈 거래' 눈총
광주경찰청 수시로 모니터링…사기 신고도 55건

어린이날 연휴를 앞두고 프로야구 입장권의 웃돈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한국프로야구(KBO) 등에 따르면 5월 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IA 타이거즈와 한화 이글스의 3연전 경기 입장권은 전석 매진됐다.

KIA는 5월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열리는 3연전을 '미리 갸린이 날 시리즈'로 정했다.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캐치 티니핑'과 협업해 선수단이 티니핑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한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부에는 티니핑 컬래버 에어벌룬, 캐릭터 등신대, 포토월 등이 설치된다. 티니핑 모습이 담긴 포토카드와 포토부스도 운영한다.

이처럼 KIA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한다는 소식에 팬카페, SNS 등에는 기대를 나타내는 글이 공유되는 등 연휴 분위기를 한껏 높였다.

인기를 반영하듯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앱 등에는 웃돈을 붙여 입장권을 판매하는 게시글이 넘쳐났다.

한 판매자는 '5월 2~4일 티켓을 출력할 수 있는 바코드 또는 모바일티켓을

선물하기로 전달해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1루 K5 106 블록 2연석 장당 4만원, 1루 EV 510 블록 2연석 장당 4만원(통로 자리), 외야석 3만~5만원, 1루 K8 107 블록 단석 장당 6만5000원에 판매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1루 중앙테이블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장당 17만원에 거래하며, 5월2일 한화이글스 vs 기아타이거즈 원정 1루 응원 2연석을 6만5000원에 양도한다고 알렸다. 아예 판매자와 가격을 협의한다는 게시글도 있었다.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K5와 EV석, 외야석의 요금은 각각 1만8000원, 1만3000원, 1만3000원이며, 중앙테이블석은 1인당 5만5000원이다.

중고거래 앱 '당근'에서는 '티켓 구합니다', '양도받아요' 등의 구매 게시글도 넘쳐났다. 이중 다수는 '무조건 문자 주세요. 가격은 제시한 대로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등의 게시글로 암표 거래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며 일부 팬들은 씁쓸함을 내비쳤다.

강모씨(40·화정동)는 "어린이날 야구장에 가기로 아들과 약속했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구매를 포기했다. 야구 관람은 다음 주말경기로 미루자고 달래줬다"고 푸념했다.

광주경찰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구매해 판매하는지 상시 모니터링하며, 매표소와 출입구 등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 매매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사례를 조사하면 거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관된 경우가 있다"며 "정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매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024년 한국시리즈 기간 중 광주지역 티켓 판매 사기가 242건 발생했다. 올해 3월17일부터 4월29일까지 광주경찰청에 신고된 야구 티켓 판매 사기 건수는 55건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남구 지역밀착형 '히어로 복지관' 출범

광주 남구가 17개 동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밀착형 히어로(hero) 복지관'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히어로 복지관 출범식이 이날 오후 2시 청사에서 김병내 구청장과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히어로 복지관은 지역밀착형 사회안전망 장치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는 주민들의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남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재한 14개 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3곳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담당권역을 부여, 동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내용은 어르신 영양식 지원과 은둔형 청년 고립가구 지원, 달빛어린마을 지원, 중장년 남성 1인가구 자립 지원, 1·3세대 교류 프로그램 사업 등이다.

임영진 기자 looks@

도시농부 마을 텃밭 개장 30일 광주 서구 매월동에서 열린 '서창 도시농부 마을 텃밭'에서 서창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오이, 가지, 상추 등 모종을 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DJ 정신 배우는 '글로컬독서인문학교' 본격화

전남교육청, 지역 문학 자원 활용 '독서인문교육' 운영
지역 주도형 초·중·고 연계…다양한 진로·진학 길 열어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문학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독서·글쓰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글로컬독서인문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30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글로컬독서인문학교는 지역 문학 자원을 기반으로 초·중·고 연계 독서인문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진학의 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독서인문 미래학교다.

전남교육청은 학교급별 독서인문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전남형 글로컬 교육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독 습관과 평화·인권·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는 '김대중 독서교실'을 운영해 고전 읽기와 지역사회 참여 프로젝트 중심의 프로그램을 전개한다.

중학교는 한강 작가의 글쓰기를 모티브로 한 '청소년 작가교실'을 통해 학년별 글쓰기 활동과 지역 작가 연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등학교는 초·중학교에서 길러진 독서·토론·글쓰기 역량을 기반으로, 선택교과 및 국외 인문학 교류 중심의 '진로·진학 인문교실'을 운영한다.

글로컬독서인문학교의 초·중·고 연계 모델 개발을 위해 △해남서초 △해남제일중 △해남고를 선도학교로 지정했다. 또 '김대중 독서교실'과 '청소년 작가교실'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학교로 △라온초 △남악초 △하의초 △목포영화중 △보성여중 △법성중을 선정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2025년 선도학교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우수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급별 프로그램을 정비해 2026년에는 권역별, 2027년에는 시군별로 글로컬독서인문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길 미래교육과장은 "전남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학교급 단위를 넘어 초·중·고 연계와 지역사회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글로컬독서인문학교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전남교육이 글로컬교육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2억 국가배상 판결

2년 3개월간 가혹행위 당해…보호감호처분 받기도

1980년 정부의 불법 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2년 3개월 간 가혹행위를 당한 60대 시민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A씨(61)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A씨에게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1980년 8월4일 전남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된 뒤 광주 삼청교육대와 군부대에 수용돼 순화 교육을 받았다.

보호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그는 1982년 11월 출소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계엄 선포에 따라 군·경은 영장 없이 총 6만755명의 대상자를 검거했고 3만9742명을 전후방 26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원고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 포고의 적용으로 인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돼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 보호감호처분을 받기까지 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면서 "이는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의 불법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원고가 2년 3개월 간 구금돼 근로봉사, 순화 교육을 거치면서 크나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후에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여전히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